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 2권 2호 (2014. 8) pp. 21~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2 Iss. 2 (Aug, 2014)

치위생관리과정과 인간욕구이론에 근거한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미충족 욕구 분석

문소정, 노희진[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Oral health related unmet needs of a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and human need theory

So-Jung Mun, Hie-Jin Noh[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220-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ral health related unmet need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in one university students. Subjects were 100 university students attended dental hygiene care program at a university. We analyse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subjects, and well trained dental hygiene students was diagnosed about the oral health related unmet needs based on human need theor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version 20.0. The 'Responsibility for oral health' was unmet in most(77.0%), on the other hand unmet need about 'Skin and mucous membrane' was not presented because the subjects were comparative young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It is recommended analyze the subjects' oral health status on the basis of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li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dental hygiene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Key words :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human need theory, oral health status, university students

색 인 : 구강건강상태, 대학생, 인간욕구이론, 치위생관리과정

교신저자: 노희진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관 214호
Tel: (033) 741-0394, Fax: (033) 735-0391, E-mail: nohh14@yonsei.ac.kr
투고일자: 2014. 7. 17. 심사일자: 2014. 7. 17. 게제확정일자: 2014. 8. 13.

1. 서론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연구결과 계속구강건강관리를 받은 후 칫솔질 방법이 회전법으로 변화하고, 칫솔질 횟수도 증가하였으며, 치면세균막지수와 치석지수 또한 의미있게 줄어들어 계속구강건강관리의 효과를 보고하였다(1). 이는 구강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르지 않은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여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강 질환은 급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드물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

대한치과위생사협회(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KDHA)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3), 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에서는 치과위생사는 치위생관리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이라는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근거중심의 과정을 수행하여, 보다 양질의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며, 사정과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며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4). 또한 Darby와 Walsh는 치위생과정의 이론적인 틀로 인간욕구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총 여덟 가지의 구강건강에 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해결하여 건강증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6).

실제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치과방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구강질환이 예방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7). 또한, 대학생인 20대의 기간은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행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건강관련 지식을 알려주고, 적절한 처치를 해 주는 것이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8).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계획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치위생관리과정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볼 필요 있다. 기존에 계속구강건강관리의 효과를 측정한 논문을 살펴보면 대상이 주로 어린이나 노인 또는 구강건강의 취약계층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바를 살펴보면 대학생과 성인의 구강건강행태와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밝힌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치위생관리과정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한 바는 없어,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한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여 치위생관리과정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일개 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진행한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45명은 보건의료계열 학과 학생들이었으며 55명은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한 일반 대학생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설문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치과병력,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행동과 자가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병력,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연구자가 고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설문지는 성남시 구강보건실태조사 설문지(9)를 인용하였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문항은 각각 10문항씩이었으며, 지식의 경우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고 태도와 행동의 경우 바람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 항목 당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정하였다.

2.2.2.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검사

연구대상의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HP index)를 측정하였다. 훈련된 검사자가 액상 치면착색제를 사용하여 검사대상인 여섯 개 치아(상악 좌·우측 제1대구치,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견치,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를 착색하고, 침착된 치면세균막을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PHP index의 점수는 0점부터 5점으로 5점으로 갈수록 구강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PHP index의 최저점은 0.3점이었고 최고점은 3.8점, 평균은 1.74점이었다.

본 연구의 검사자는 모두 동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한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39명이었으며, 연구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PHP index 측정법에 대하여 재교육하였다.

2.2.3. 치위생진단 (dental hygiene diagnosis)

앞서 수집한 연구대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치위생진단을 하였다. 치위생진단은 Darby와 Walsh가 제시한 인간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구강건강에 관한 여덟 가지 욕구 중 미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였다(5). 판단의 근거와 여덟 가지 구강건강에 관한 욕구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학생들이 판단하여 챠트를 작성한 후 훈련된 치과위생사가 재평가하여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1> 구강건강에 관한 욕구(need)*

욕구		근거
Wholesome facial image	심미적 요인	치아, 치은, 구취
Protection from health risks	전신건강 요인	생징후 이상, 예방적 항생제 필요, 외상 위험
Biological sound and functional dentition	치아요인	저작장애, 잘 맞지 않는 의치, 장치, 불량 수복물, 마모, 부식, 교모, 치아우식활성 위험, 치아우식증, 상실치아
Skin and mucous membrane	두경부 피부와 점막요인	구외/구내 병소, 치주낭≥4mm, 부종, 부착상실≥1mm, 치은염, 구강건조증, 탐침 시 출혈
Freedom from head and neck pain	두경부 통증요인	구외/구내 동통, 민감성
Freedom from anxiety and stress	치과진료 공포와 스트레스요인	임상가와의 신뢰 / 기존치과 경험에 대한 불안, 구강 습관, 감염관리, 불소, 수은중독에 대한 염려

욕구		근거
Responsibility for oral health	구강보건행동요인	치면세균막과 치석 침착, 구강관리 용품의 부적절한 선택 및 사용, 최근 2년간 치과검진을 하지 않음
Conceptualization and understanding	구강보건이해요인	구강건강에 관한 부적절한 지식과 태도

* by Darby and Walsh(5)

2.2.4. 통계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병력은 빈도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과 태도, 행동과 자가구강구강위생관리능력은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미충족 욕구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병력조사 결과

연구대상자의 61%가 여성이었으며, 만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였다.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안경광학,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포함하는 보건계열 학생이 45%이었고, 그 외 일반 학과의 대학생이 55%이었다.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학생은 11.0%이었으며,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학생은 21.0%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8.0%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50%는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 최근 치과방문 시기는 6개월 이내가 33.3%로 가장 많았으나, 2년이 넘는 학생도 약 30%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구강관련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도 70%를 차지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병력

변수	범위	N	%
성별	남	39	39.0
	여	61	61.0
연령	17 - 21	56	56.0
	22 - 28	44	44.0
전공	보건계열	45	45.0
	비보건계열	55	55.0
최근 치과내원시기	6개월 이내	33	33.3
	6-12개월	26	26.3
	13-24개월	12	12.1
	24개월 초과	28	28.3

변수	범위	N	%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자신의 구강건강에 문제 있음	88	88.0
	현재 치료가 필요함	49	49.0
	구강상태에 만족하지 않음	70	70.0
	구강관련 외모에 만족하지 않음	70	70.0
	계	100	100.0

3.2. 연구대상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행동과 구강위생상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5.85점으로 중간정도이었으며, 태도는 6.38점, 행동은 6.44점이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구강보건태도와 행동이 약간 바람직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17-21세가 22세 이상인 대상자에 비하여 구강보건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하여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하였으나, 실제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을 조사한 결과 비보건계열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PHP index는 평균 1.74점이었으며 성별과 연령,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위생상태

변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태도	구강보건행동	구강위생상태 (PHP index)
성별	남성	5.85±1.48	6.15±1.63	6.31±2.18	1.86±0.74
	여성	5.85±1.44	6.52±1.71	6.52±1.71	1.67±0.77
	p-value	0.983	0.280	0.604	0.215
연령	17 - 21	5.79±1.41	6.66±1.68	6.63±1.80	1.73±0.72
	22 - 28	5.93±1.50	6.02±1.64	6.20±2.28	1.77±0.81
	p-value	0.618	0.059	0.305	0.791
전공	보건계열	6.13±1.39	6.84±1.51	6.76±2.14	1.75±0.75
	비보건계열	5.61±1.46	6.00±1.73	6.18±1.91	1.73±0.78
	p-value	0.076	0.012*	0.160	0.903
	Total	5.85±1.45	6.38±1.68	6.44±2.03	1.74±0.76

The data were analysed by independent t-test, *p<0.05

3.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미충족 욕구

구강건강에 관한 여덟 가지 욕구 중 구강보건행동요인이 전체 대상자의 77.0%가 미충족하여 가장 많았으며, 두경부 피부와 점막요인이 결핍되어 있는 대상자는 없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미충족 욕구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외모에 해당하는 심미적 요인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행동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이 결핍되어 있었다. 치아요인과 구강보건행동요인의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가 더 많이 결핍되어 있었고, 보건계열에 비하여 비보건계열 대상자의 경우 구강보건행동요인이 결핍된 경우가 더 많았다(표 4).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에 관한 미충족 욕구

	변수	need 1	need 2	need 3	need 4	need 5	need 6	need 7	need 8
성별	남성	11(28.2)	10(25.6)	12(30.8)	0(0.0)	4(10.3)	9(23.1)	32(82.1)	7(17.9)
	여성	23(37.7)	18(29.5)	15(24.6)	0(0.0)	10(16.4)	21(34.4)	45(73.8)	13(21.3)
	p-value	0.328	0.674	0.497	-	0.388	0.227	0.337	0.682
연령	17 - 21	20(35.7)	14(25.0)	19(33.9)	0(0.0)	7(12.5)	16(28.6)	46(82.1)	10(17.9)
	22 - 28	14(31.8)	14(31.8)	8(18.2)	0(0.0)	7(15.9)	14(31.8)	31(70.5)	10(22.7)
	p-value	0.683	0.451	0.078	-	0.626	0.725	0.168	0.546
전공	보건계열	14(31.1)	14(31.1)	12(26.7)	0(0.0)	7(15.6)	12(26.7)	37(82.2)	9(20.0)
	비보건계열	20(36.4)	14(25.5)	15(27.3)	0(0.0)	7(12.7)	18(32.7)	40(72.7)	11(20.0)
	p-value	0.581	0.531	0.946	-	0.685	0.511	0.262	1.000
	Total	34(34.0)	28(28.0)	27(27.0)	0(0.0)	14(14.0)	30(30.0)	77(77.0)	20(20.0)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test, *p<0.05

need 1. Wholesome facial image
need 2. Protection from health risks
need 3. Biological sound and functional dentition
need 4. Skin and mucous membrane
need 5. Freedom from head and neck pain
need 6. Freedom from anxiety and stress
need 7. Responsibility for oral health
need 8. Conceptualization and understanding

4. 고안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의 구강보건상태를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위생관리과정과 인간욕구이론의 근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관련 문제점을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본인의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정도이었으나, 구체적으로 구강에 현재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약 50%를 차지하여, 치료가 필요하고 자신의 구강에 현재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구강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대가 주를 이루는 대학생을 조사한 만큼 외모에 관심이 많아 30%만이 자신의 구강관련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악수술과 미용을 목

적으로 한 치과교정치료 등 치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심미치료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최근 치과에 내원한 시기는 6개월 이내가 33.3%로 가장 높았으나, 28.3%는 최근 2년 이내에 치과에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은 평균 5.9점이었다. 구강보건지식의 문항은 충치의 유발과 예방법, 잇몸병의 원인과 예방, 흡연과 구강건강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구강보건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을 인용한 것으로 대학생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하였으며, 보건계열 학생들 또한 6.1점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아 구강건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교육이 필요한 현실임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대학생을 조사한 다른 논문에서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질문은 정답률이 90% 이상이었으나 '치아가 아플때만 치과에 가면 된다.' 와 '치통이 있을 때 약만 먹어도 된다.' 등 혼돈하기 쉬운 질문의 정답률은 10%대에 그쳐(10) 대학생들이 잘 판단할 수 없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고, 구강건강관련 행동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성인이 구강보건 실천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구강건강행위는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2). 따라서 구강보건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의 부족한 점을 잘 파악하여 자가구강건강에 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교양과목으로 구강건강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강한 바 있다. 그 효과로 구강보건태도는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바람직하였으며 지식과 행동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구강관리상태를 보여주는 PHP index는 두 집단이 비슷하게 나타나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으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이 간호학과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이었고, 수업을 수강하면서 지식과 태도 행동은 변화하였으나,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아 실제 치면세균막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습을 병행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실제로 기존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치위생과정에 기반한 임상증례 실습 결과 치면세균막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효과적인 치면세균막 관리를 하기 위하여 치면세균막 관리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 치위생관리과정 수행 전에 비하여 후에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의 환자군이 60%에서 20%로 감소하였으며, 구취가 심한 집단도 감소하였다. 또한 치면세균막을 나타내는 오리어리 지수가 46에서 약 33으로 감소하여 치위생과정의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1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미충족 욕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강보건행동요인(77.0%)이었다. 구강보건행동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치면세균막과 치석 침착, 구강관리용품의 부적절한 선택 및 사용, 최근 2년간 치과검진을 하지 않음이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PHP index의 평균값은 높지 않았으나, PHP index는 특정 치아의 치면세균막이 얼마나 많이 침착되어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로, 전체 치아의 구강위생상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치면세균막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로 plaque rate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치아의 30% 이상에 치면세균막이 침착되어있는 비율이

89%를 차지하여 구강보건행동요인이 미충족된 대상자가 많은 결과를 설명하여 준다. 또한, 두경부 피부와 점막요인의 경우 결핍된 대상자는 없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준미 등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결핍된 욕구를 확인한 결과 구강건강행동에 관한 욕구는 26.0%, 두경부 피부 및 점막에 관한 욕구는 24.8%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4년 동안 내원한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분석 건수가 많고, 연령대가 다양하고 본 연구의 환경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치위생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두경부 피부 및 점막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없었던 것은 대상자가 모두 30세 미만의 젊은 대학생이었으며, 치면세균막 지수를 평가해 보았을 때 자가구강위생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치은의 병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치위생관리과정의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즉, 치위생과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치주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고, 계속관리에 관한 환자의 협조도가 기존 연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협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15). 또한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95%가 칫솔질 방법을 회전법으로 바꾸었으며, 칫솔질 시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치석지수와 치면세균막 지수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치아우식활성도 또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1). 따라서 이렇게 치위생관리과정을 수행한 후에 나타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수행을 계획할 수 있기 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중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위생관리계획을 세우는 근거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치과정기검진을 받는 데에 치과공포가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의 치과공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구의 소리와 과거의 통증 경험이 약 30%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공포가 없는 사람이 치과정기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공포가 없는 사람이 구강건강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치과정기검진을 하도록 권고하는 데 있어 치과공포 변수 또한 고려하여야 하겠다(16). 계속구강건강관리는 개인 별 구강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구강상태를 평가한 후 맞춤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부 대학생을 조사한 내용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으며, 치위생관리과정의 이론적인 틀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에 이론적인 틀을 파악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임상치위생 분야에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수도원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관련 미충족 욕구를 치위생관리과정과 인간욕구이론의 개념으로 진단하여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치과위생사가 치위생관리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틀을 적용하고,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치위생관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치과방문 시기는 6개월 이내가 33.3%로 가장 많았으나, 2년이 넘는 학생도 약 30%를 차지하였으며, 10대에서 20대의 대학생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자신의 구강관련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도 70%를 차지하였다.
2. 구강보건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5.85점으로 중간정도이었으며, 태도는 6.38점, 행동은 6.44점이었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하여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PHP index는 비슷하여 올바른 태도가 상태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 행동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구강건강관련 미충족 욕구 중 가장 많은 것은 '구강보건행동요인'이었으며 전체의 77.0%가 이에 해당하였다. 즉, 자가구강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면세균막과 치석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치과검진을 2년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대학생에게 이러한 부분의 인식을 전환하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조민정. 계속구강건강관리(IDC)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1): 153-167.
2. 최하나, 임순연, 조영식. 일부 대학생에서 치면세균막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치면세균막 감소 효과 및 관리 난이도. 치위생과학회지 12(1):39-44, 2012.
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 소개. [online] http://www.kdha.or.kr.2014.07.17.
4.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ADHA).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Dental Hygiene Diagnosis Position Paper. USA: ADHA;2005.
5. Darby MM, Walsh ML.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Missouri: Saunders;2003:3-30.
6. Darby ML, Walsh ML. Application of the human needs conceptual model to dental hygiene practice. J Dent Hyg 2000;74:230-237.
7. 김정술.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이용행태. 한국위생과학회지 2008;14(1), 31-37.
8. 김연화. 울산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12(1):361-368.
9. 성남시. 성남시 구강보건실태조사 보고서. 성남, 성남시, 2002.
10. 윤현서, 남유영, 유현아, 김혜진, 이민경 외 1인. 일부지역 대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조사.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2013;1(1):107-115.
11. 이은주, 박은희. 성인의 자가구강건강인지 특성, 구강보건 행동인식 및 구강보건실천의 연관성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0;34(4):595-602.
12. 장계원, 강용주, 정미경. 스켈링 실습실 방문자의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6):1083-1093.
13. 박정란, 이연경, 손화경, 홍민희. 임상치위생관리과정 수행 전·후에 따른 구강위생상태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2014;14(1):25-32.
14. 이준미, 정원균, 유재하, 김남희. 치위생과정을 적용한 치위생관리 기록부 분석.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4):768-783.
15. 오혜영, 김창희, 박용호, 임순환, 김진. 치위생과정 수행 전과 후의 치주상태 및 구강건강증진행위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2012;12(5):861-870.
16. 이준미, 장선옥. 치위생학과 구강위생교육실에 내원한 대상자의 치과공포 원인과 구강건강관리행태.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4):705-715.